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하늘나라 스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그 영화의 출연진, 스태프 모두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화가 성공하는 것이다. 요즘 흥행의 기준이 되는 ‘천만 관객’ 영화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만 하면 주연은 물론이요, 조연들까지도 일약 스타가 되어 명성과 상상 이상의 부귀를 거머쥐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독의 주가도 하늘을 찌른다.

영화 제작 시 주연이나 조연에 누굴 쓰느냐는 감독 마음이다. 감독은 ‘이 역할에는 어떤 사람이 맞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결정한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영화배우는 감독에게 감사하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가끔 이미 스타인 배우 중에 감독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있단다. ‘내가 누군 줄 아냐?’며 목에 힘을 주는 거다. 누가 스타를 만들어줬는지 잊어버리고. 그런 자는 어찌 될까? 감독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 배우를 쓰지 않는다. 퇴출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가 잘 돼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역할에 어울릴지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고,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가끔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잘 되고, 성공한 자들이 감독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다. 사울이 그랬다. 누구 덕분에 지금의 자기가 있는지 잊은 거다. 그래서 아웃!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 107:10~11).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스타가 되면 받는 축복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 28:1)이다.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스타가 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고 내가 그래서 스타가 되었다. 우리, 감독의 지시 따라 최선을 다해보자. 반드시 최고의 스타가 되리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지혜를 갖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4:14).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이스라엘의 국운 앞에 모르드개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한 말이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이때를 위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원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은 매 강의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현명한 판결과 승복, 그리고 어떤 폭동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목사님은 먼저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하셨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형 잡힌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AI가 찬송을 하면 안 된다. 기도도, 안수도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과거 우리 교회는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가장 먼저 이를 접수하고 발 빠르게 인터넷 방송의 문을 열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AI시대에도 적응, 대처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처치(franchise church)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갈수록 대형교회는 유지가 어렵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 예배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가까운 곳에 소단위로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

를 알라’고 하셨음을 알자.”

맛있고 풍성한 식사 후 저녁 강의에서 목사님은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주제로 성공한 음식점과 성공한 교회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교회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성공한 음식점을 보라. 그들은 광고를 잘하고 서비스가 좋다. 음식이 맛있고, 환경이 청결하며, 주차시설이 좋고, 값이 싸고 문턱이 낮다. 그리고 이벤트가 많다. 교회도 영적 기업이고, 영적 양식을 파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광고하고,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설교와 찬양이 맛있어야 하며, 모든 제반 시설이 좋고 편안해야 하고, 주차시설을 가능한 넓게 갖추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턱을



2025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3월 17일 ~ 19일 예루살렘기도원)

총회장 목사님은 첫 강의 시간에 ‘시대의 흐름을 배척하지 말고,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지금은 AI(인공지능)가 대세인 시대다. 이때 교회는 어찌해야 할까? 교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 곧 위험성도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균

는 것도 지혜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마 18:20), 이것은 세상을 앞서 보시는 하나님이 소단위 교회, 곧 cell-church를 암시하신 것이 아닐까. 세포(cell)들이 모여 육체를 이루듯, cell-church를 기본 단위로 프랜차이즈 처치가 활성화된다면 복음을 더 많이, 폭넓게 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성장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고착된 사고와 배타적인 생각이다. 만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됨을 믿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성경에도 ‘시세

낮추며, 부흥회나 봉사활동, 구제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든 좋겠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생각하고, 사명에 부도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가자.”

예수님도, 총회장 목사님도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이다. 이 염원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목회자들을 통해 이뤄지리라 믿는다. 끝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신묘수 전도사



성도들이 제공한 풍성한 식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교단 목회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3:10)

십일조를 드려 우리 모두 잘 살자

목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십일조 설교입니다. ‘수입의 1/10을 내라’는 설교이니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돈 이야기하면 자라처럼 목이 썩 들어가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십일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일조는 만사형통의 열쇠이고,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복 받는 비법이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안 가르치면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하신 말씀에 후회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말3:10~12). 십일조를 하면 돈이 넘치고, 사업과 가정과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형통하며,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진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십일조를 드리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이자 몇 푼 더 준다는 말은 믿고 거기에 돈은 넣으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왜 안 믿습니까?

십일조를 드리면 내 삶과 사업에 불황이 없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십일조는 율법의 산물이니 복음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복, 복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러나요? 아니, 복 안 받을 거면 뭇 하라 신앙생활 합니까? 주말에 불루탈라 놀러가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세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현세의 복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신약에는 십일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고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박하나 회향 같이 사소한 것까지 10분의 1은 엄격히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회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왜요? 복음시대에 율법

에 있는 십일조를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하긴 했지만 정작 정의(義), 사랑(仁), 믿음(信)은 온데간데없이 형식과 의식만 지켰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십일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진 더 깊은 차원의 참된 십일조의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십일조로 인해 축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완

전케 하려 오셨습니다(마 5:17). 또한 진리는 다수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십일조를 안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십일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 17~20절에 아브라함에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덱에게 노획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드려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

니다. 이는 히브리서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 나무와 과일, 소와 양의 10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는 14장 22~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도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것 중 1/10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다. 그 런 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9/10은 ‘너희가 써라’ 하신 것이고, ‘1/10은 내 것이니 내게 가져와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1/10을 가져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인간의 것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달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종자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곧 모내기를 할 겁니다. 모내기는 별씨, 곧 종자 씨를 모판에서 길러, 모가 나오면 그것을 눈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 모를 잘 가꾸면 엄청난 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가 이 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 많이 주시려고 1/10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레27:30). 수익의 1/10은 무조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뭐가 될까요? 역시 도둑놈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십일조를 드리

지 않는 자에게 ‘도둑놈~~’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3:8).

저는 도둑놈 소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인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갑자기 소가 나타나더니 저에게 ‘도둑놈!’ 하고 지나갔습니다. 놀란 제가 ‘누가?’ 하고 물었더니, 소가 ‘네가!’ 그러는 겁니다. 이상을 본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있나 없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과한 후 귀빈실에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더러는 예물을 들고 오기도 하고, 더러는 개인적인 용돈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상담 중 늘 옆에서 함께하던 김종일 장로가 그것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그 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서 제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그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돕는 것도 주의 일인지라 십일조를 떼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깨닫고, 지교회 모든 목사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십일조를 명령했습니다. 그 후 우리 교단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었고, 큰 전대를 차고 세계를 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아름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0~22). 도망자인 아람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일조에 있었습

십일조는 축복의 종자 씨다

가난이 지긋지긋합니까? 일이 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됩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꼬입니다. 십일조를 하세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십일조를 하세요. 심어야 낫 것 아닙니까? 농부가 먹을 게 없어도 종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꼭 십일조를 드려서 넘치게 복을 받고, 또한 남도 도우며 우리 모두 잘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세계질서의 재편

세계 2차대전 당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은 130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지만, 소련은 민간인 포함 2,660만 명이 사망하였고, 특히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포위전은 독일군이 900일간 지속적으로 포위하여 이곳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사건으로서 이를 탈환한 1월 27일을 기념일로 기억하며, 시내 주요 광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기념시설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1,800km에 불과하고 대부분 평지였기에, 소련은 유럽의 침공으로부터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동유럽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성정부를 수립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최대한 통합하여 단일국가를 구축하였지만, 결국 1991년 12월 제국은 해체되고 약한 수준의 연방으로 재출발하였습니다.

소련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던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영국과 독일은 2차대전 종료 이전의 수준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대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엄격한 수준의 기독교 국가였을 때, 하나님은 서방국가의 최대 위협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민주화까지 실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2월 6일 미국 폭스뉴스의 대

표 앵커였던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대담에서 소련 해체의 결핵은 외세의 압박이나 체제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내부적 비효율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이행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전임이었던 엘친 대통령은 나토 가입에 대한 의사를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고, 푸틴 대통령 또한 집권 이후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의사를 전달했을 때, 클린턴이 수락 후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번복을 통보하자 이후 러시아는 서방측과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되 적대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도 독일의 통일승인 과정에서 서방측은 통일 이후 독일에서 단 1인치도 동진(東進)하지 않을 것이고, 동유럽 국가 또한 NATO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오다가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중립지역으로 존속하겠다는 기존의 약정을 파기하고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군사훈련까지 감행하자 러시아는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적 공격이 불가피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포퓰리즘적 다수결만 좇으며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다간 망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임윤석

:: 빛과 소금 ::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그중에서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을 볼 때 잎 모양이나 크기도 모두 다르고, 저마다 지닌 색깔도 너무 예뻐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예술가예요!”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꽃들은 심긴 장소, 자라는 환경,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꽃들을 다양하게 만드신 분, 피어날 때와 질 때, 자라날 환경과 장소를 정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꽃은 온실에서 사랑과 정성을 받으며 곱게 자라는 꽃이 있고, 또 어떤 꽃은 길가에 피어 비와 눈과 바람에 노출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미소 짓게 만드는 꽃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경탄하는 때는 다름 아닌 돌이나 바위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을 볼 때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꽃이 자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한 가닥 피어나는 꽃,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주위에 다른 꽃들도 없이 좁은 바위틈 사이 홀로 자라서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참 대단하다’ 생각하며 바라보게 한다.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심겨졌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은 선택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다. 어떤 이는 온실 속 좋은 토양에 심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바위틈에 피어나는 꽃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심겼을 수 있다. 심긴 곳은 모두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심겼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게 아닐까 싶다. 남들과 비교해 불평하기보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은 잠시 시선을 멈추시고, “너 참 기특하다, 애썼다.” 하시는 않을까.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자!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1).

송지혜 집사

:: 찬양과 경배::

겸손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을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목사님이셔서 늘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인사를 드리자마자, “예수아, 겸손해야 한다. 늘 겸손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뒤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는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는 저를 세우시더니,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스스로를 겸손하다 여겼던 제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겸손에 대해 생각이 깊던 중 사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겸손은 ‘겸손할 겸(謙)’에 ‘겸손할 손(遜)’으로, 그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

지 않는 태도가 있음’입니다. 뜻을 알고 나니 제가 하나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깨닫게 되며 그 동안 교만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내가 아직 될 익어서, 익어가는 중이어서 머리가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완전히 익어 고개를 숙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말합니다(엡4:13, 약1:4, 롬12:16).

윤예녹 생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수

:: 생명의 말씀 ::

과정이 좋아야 한다

세상은 어떤 일의 ‘과정’보다 ‘결과’에 주목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 열광하다가도, 그 과정의 불합리성이 드러나면 등 돌리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이 불법이었어도 그 과정과는 무관한 일인가? 무법의 세상에서는 눈속임이 가능해도 법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도 법치주의이기에,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마지막 때 공의롭게 평가하신다(마7:21~23).

예수를 믿는 시작은 좁은 문으로 시작해, 험악한 길을 걸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출발도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좁은 문으로 시작하고, 과정에서도 그 법을 따르고 사는 좁은 길이다. 이 과정이 좋아야 그 끝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도둑질해서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하셨듯이, 과정 자체가 여전히 도둑놈의 본질이니 거기서 나온 열매도 부당한 열매다. 도둑놈이라는 과정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 신뢰를 잃게 된다. 어떻게 ‘현재’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불법의 과정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가? 구원의 벼락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절차적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엡2:22).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을 ‘영원한 현재’라 한다. 늘 현재의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예수님을 모방한 짝퉁인 적그리스도는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다(계 17:8). 마귀는 현재라는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 온갖 편법과 술수로 미래를 얻어내게 한다.

우리 교단의 핵심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다. 화석화된 과거 예수의 역사적 지식만 배우는 것도 아니요, 미래 희망 사항으로서의 비전만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예수님을 지금 영적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교단이다. 천국가는 ‘과정으로서의 현재적’ 삶을 중히 여긴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공의와 법치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국가와 사회 모든 공적 영역 속에서도 빠짐없이 성취되길 바란다.

송지화 목사

:: 성도간증 ::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2025년 새해를 맞이한 날부터 목사님은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마침내 리모델링 한 노량진 교육관에서 직접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님은 귀찮지도 않으시나? 힘들지도 않으시나?”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지요.

저는 첫 주에는 참석하지 않다가 둘째 주에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가보니 열성과 우리 성도들이 시작 전부터 성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불을 꺼라’ 하시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기도를 하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마치 38년 전 인천 송의동 성전에서 금요철야가 부활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때도 불을 끄고 통로에 무릎 꿇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첫사랑,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조금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이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첫사랑을 찾았습니다. 2시간 기도가 20분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내 몸에

산소를 스프레이로 흠뻑 적시게 뿌려준 것 같은 상쾌함이 있었고, 수정같이 맑은 기분이었습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안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는 것과 늘 함께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도회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참외 같은 전대미문의 축복의 별미를 제공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며,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신립교구 문경희 권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봄의 연주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산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다매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한눈으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도 현실의 욕망에 가려 갈 길을 잃고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육적 맹인보다 더 불쌍함이 영적 맹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눈을 밝혀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43:8).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 소원은 단순

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수록 우리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때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길을 잃고, 세상에 매여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성에 있고, 그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곳곳에 나무들이 새순을 내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뿌리에 축적한 힘으로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돌아오는 봄날에는 반드시 새싹을 틔우고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지 위에 봄의 연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멋져 보이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내가 가야 할 길과 은혜가 소중합니다. 한평생 다윗을 시기하며 헛된 인생을 보낸 사울이 아닌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가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연주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19:8).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나의 피난처 예수

시편에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사전적으로 ‘피난처’는 ‘근심, 고통, 위험에서 피할 장소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피할 피난처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시62:8)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의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술이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이나 영화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노래를 듣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등을 보며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며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작년 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기분을 좌우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즐겨 먹던 간식도, 커피도 이 기간에는 전부 끊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음식이 먼저 떠올랐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한 이후로 기도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기도 응답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식었다면, 나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시시한 것에서 기쁨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우리를 얕매는 족쇄가 됩니다. 처음은 내 의지로 한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쉽게 끊어낼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은 기쁨과 참 자유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재앙과 환난에서 건지며 간구에 응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노량진 전초기지

전초기지(前哨基地, outpost)란 전방 초소 전투기지란 뜻의 군사용어다. 이 전초기지란 단어는 군사 분야 외에도 정치, 과학, 산악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요즘 연초부터 시작된 노량진 기도회를 통해 노량진을 기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예배는 화곡동 88체육관에서, 기도회는 노량진에서, 곧 두 개의 알곡 전초기지를 확보한 셈이다. 필자가 속한 청년부도 총회장 목사님의 사랑으로 연초 교육관 공사를 통해 문래에서 노량진 교육관으로 옮겼다. 마치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청년부의 터전을 노량진으로 이전하신 것이다. 당시 고민이 깊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청년부를 이곳 노량진으로 보내셨을까? 느헤미야가 성전 보수를 위해 온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듯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량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동안 노량진 근처를 수백 번 왔지만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노량진의 빼곡한 학원가들이었다. 저마다 공무원,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등 각자 꿈을 안고 빛나는 젊음의 때를 노량진에서 보내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보니 대부분 혼밥을 하는 청년들이었다. 고된 고시생활, 수험생활로 그들의 영혼은 지쳐있었고, 예수라는 안식과 평화가 반드시 필요해보였다. ‘아~ 마음이 가난하고 외로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마치 그물을 던지면 한가득 물고기가 올라오듯 불루오션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노량진을 전초기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부 형제자매들은 노량진으로 오는 매일이 즐겁다고 한다. 노량진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노량진 청년들은 어떤 전도 선물을 좋아할까? 서울시청광장집회를 위해 시청을 돌던 총회장 목사님처럼 오늘도 노량진을 돈다!

송현해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